이 수 경

1963년 서울 출생 / 서울 기반 작업

웹사이트: www.yeesookyung.com

이수경은 풍부한 서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설치 미술, 조각, 퍼포먼스, 비디오 아트, 회화, 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과거와 현재, 생명과 죽음, 현실과 비현실, 세속적이거나 성스러운 것, 개인과 타인, 사회와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탐구하며 고대 신화와 이야기에서 얻은 영감과 자신의 경험을 결합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선보인다.

이수경은 여러 차례의 개인전 《이수경: 이동식 사원》(세르누치 미술관, 파리, 2023), 《달빛 왕관》(아트선재센터, 서울, 2021), 《먼길 이야기》(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21), 《Whisper Only to You》(카포디몬테 미술관, 나폴리, 2019), 《믿음의 번식》(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2015), 《내가 너였을 때》(타이페이 현대 미술관, 타이페이, 2015) 등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Monstrous Beauty: A Feminist Revision of Chinoiserie》(The MET, New York, 2025), 《The 1st Public Art Abu Dhabi Biennial》(Abu Dhabi, 2024), 큐레이터 크리스틴 마셀(Christine Macel)이 기획한 《The 57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La Biennale di Venezia: Viva Arte Viva》(2017)에 초대된 바 있다.

이수경의 작품은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시카고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영국 런던의 영국박물관, 브리스톨 박물관, 홍콩 M+ 미술관, 스페인 ARCO 컬렉션,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국립예술관, UAE 아부다비 살라마 빈트 함단 알 나흐얀 재단에 소장되어 있다.

작품 소개

〈번역된 도자기〉(2002-진행중)

이수경은 노동집약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버려진 도자기 파편을 재구성하여 유기적이고 정교한 조각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파편은 도자기 명인들이 완벽한 작품 외에 작은 결함도 용납하지 않고 부수어 버린 도자기에서 나온 조각들이다. 이수경은 “금”과 “금(틈)”이라는 국어의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금으로 틈을 메우며, 전통 도자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수경의 수작업 과정은 미리 어떤 형태를 정하고 작업하기보다는 손이 가는 대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따라가고, 각각의 조각은 유기적으로 진화한 듯 이어져 독창적인 형태로 완성된 작품이 된다. 이 시리즈는 2001년 이탈리아 알비솔라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와 연장선상에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이수경은 한국 도자기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 도예가에게 조선 시대 도자기에 관한 시를 바탕으로 12개의 도자기 제작을 의뢰했다. 이러한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만들어진 〈번역된 도자기〉는 독특한 서사가 담긴 혼종적 존재로 탄생했다. 2010년 이후로 이수경은 한국의 백자와 청자뿐만 아닌 북한, 유럽의 도자기 파편도 수용하며 다양한 문화의 재료와 전통을 융합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Monstrous Beauty》 전시 전경, 2025,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번역된 도자기: 이상한 나라의 아홉 용〉, 2017
도자기 파편,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기둥, 에폭시, 24k 금박, 492(h)×200×190 cm
2017년 제57회 베니스 비엔날레, *VIVA ARTE VIVA* 전시 전경





(위) 〈번역된 도자기_천_2012 〈, 2012, 도자기 파편, 에폭시, 24k 금박
(아래)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쌍둥이 성좌》 전시 전경, 2012
© 국립현대미술관



(왼쪽) 〈번역된 도자기_2007 TVW 11〉, 2007, 도자기 파편, 에폭시, 24k 금박, 160(h)×90×90 cm
한국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오른쪽) 〈번역된 도자기_2007 TVW 10〉, 2007, 도자기 파편, 에폭시, 24k 금박, 122(h)×84×81 cm
캔자스 대학교 스펜서 미술관, 로렌스, 미국 소장
ⓒ 독일 데사우 오라니엔바움 미술관

〈번역된 도자기 – 우리가 다시 만날 때〉 (2025)

이 작품은 당나라 시기의 여인 기마상에서 영향을 받아 새롭게 만든, 오랫동안 내가 진행해온 〈번역된 도자기〉 작업의 새로운 형태이다. 2015년 타이베이 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을 때,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을 방문했다. 그곳의 수많은 정교한 유물들 중에서 특히 당나라 여인 기마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며 그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이번 비엔날레의 기획서를 읽던 어느 날, 그 모습이 문득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이 여인상을 타이베이 비엔날레에 출품하는 이번 작품에 담아내기로 결심했다. 작업을 하면서 나는 왜 이 형상에 매료되었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나의 오랜 관심사인 '실크로드'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육로가 완전히 차단된 분단국가에서 살아온 나에게 실크로드에 대한 갈망과 상상은 자연스럽게 커져왔다. 그 길을 따라 번성했던 고대 한반도의 역사와 유물, 그리고 다문화적 활력 또한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이 여성상과의 여정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 작품의 뒷면은 정면과 달리 거친 미완성의 형태처럼 보인다. 그곳의 작은 틈 사이로는 한 줄기 강한 빛이 새어나온다. 나는 이 모습이 작품을 보는 이들의 새로운 사유를 열고, 상상의 불씨를 지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위해 쓴 나의 시 한 편을 나누고자 한다. (작가 노트에서)

너의 쌍둥이 자매들은 모두 어디에 있니?
형틀로 복제되어 증식 될 때마다
염려도 후회도 수고도 뭉툭해진다.
너의 원본인 맏언니는 어디에 있니?
어떤 왕이 죽으면서 사랑하던 그 여인을
산 채로 같이 묻었다는 소문이 돌아.
먼 나라 눈이 푸르른 상인의 생강향 숨결과,
가슴이 검붉은 악사의 음률에 밤새 익힌 춤을
너희 자매들은 퍼즐 조각처럼 나눠 가지고 있어.
무덤에 묻히지도 뼈 하나 부러진 적도 없는
그저 맏언니의 흐릿한 복제품인 네가,
이야기의 결말을 끝없는 부활로 증거하고 있다.
어쩌면 나도 너와 같은 복제품일지도 몰라,
아프리카의 미토콘드리아 이브로부터 이어진.
이 모든 것이 다 환영일지도 몰라.
내 꿈엔 팔각향과 낙타 울음 또 모래 바람이 가득하고,
한번도 배운 적 없는 단전이 뜨거워지는 춤을 춘다.
먼 옛날 너의 맏언니와 눈 맞추던 그 피가 뜨거운 사내들이,
비단길 동쪽 끝 여기까지 비장하게 달려오다가
이 바다에서 멈춰 섰지, 기가 막혔지.
너무 진귀하고 황홀하여서 쓸모없고 허무한
옛 이야기와 보물들을 잠시 내려 놓고서.











〈번역된 도자기_우리가 다시 만날 때〉 (2025) 도자 파편, 강철, 에폭시, 24k 금박, 조명 275(h)×387×155 cm

〈달빛 왕관〉 (2018-진행중)

“오랫동안 나는 왕관을 부처, 예수, 그리고 다른 성인들의 머리 위에 묘사된 후광(halo)의 대체물로 생각해 왔다.”

이수경은 권력·부·영광의 상징인 빛나는 왕관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며 머리에 쓸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거운, 신체처럼 변형된 왕관을 만든다. 크리스털, 유리, 거울 등 반짝이는 장식 재료로 꾸며진 수많은 왕관은 천사, 소녀의 얼굴, 기도하는 손, 팔다리, 식물, 동물 등 이수경의 〈매일 드로잉〉과 〈불꽃〉 연작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티프와 뒤엉켜 있다. 과장된 에너지로 빛나는 이 왕관들은 극단적인 장식미로 인해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지며, 욕망과 절망, 매혹과 공포 사이의 이중성을 품고 있다. 이수경은 한국 민속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신비로운 여성 형상들을 창조함으로써 이 작업에 복합적인 정체성과 이중성을 불어넣는다. (글: 박지선)



《달빛 왕관》 전시 전경, 2021, 아트선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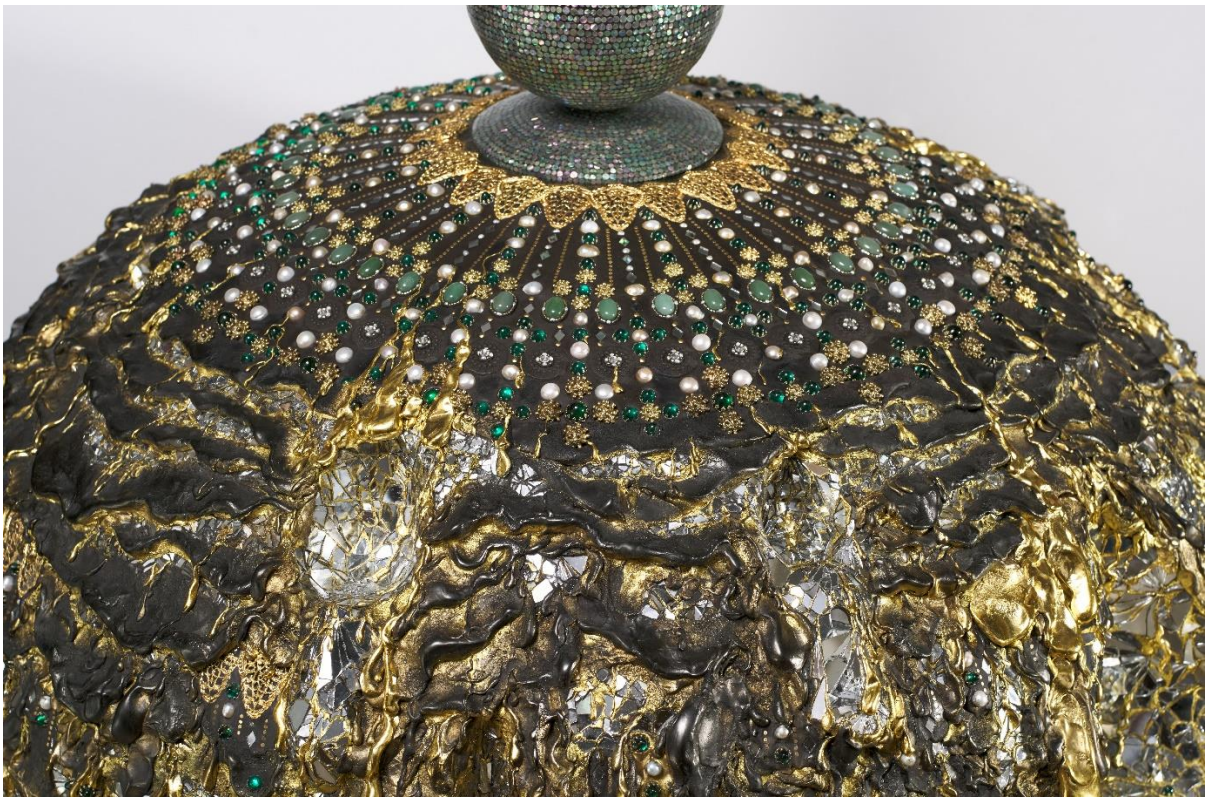


(위) 《달빛 왕관》 전시 전경, 2021, 아트선재센터

(아래) 〈달빛 왕관_다정한 자매들_동쪽 산꼭대기〉, 2021, 황동, 에폭시, 철, 레진, 114(h)×73×74 cm



(왼쪽) 〈달빛 왕관_모두 잠든 다정한 자매들 5-2〉, 2023, 61(h)×37×26 cm
(오른쪽) 〈달빛 왕관_용의 신부〉, 2018, 162(h)×90×90 cm



〈달빛 왕관_사자 토템〉 상세 이미지, 2019, 225(h)×87×87 cm

〈그곳에 있었다_아부 다비 2024〉, 〈그곳에 있었다_알 아인 2024〉 (2024)

〈그곳에 있었다_ 2024〉는 AI가 생성한 가상의 돌을 24k 금박으로 덮어 만든 조각 작품이다. 이수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점 곳곳에서 발견된 바위의 이미지에 영감을 받아 현실에는 부재하는 돌을 형상화했다. 여기에 금을 입히는 행위는 이 상상의 결과물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의 70%는 바위로 이루어진 산악 지형이며, 한국의 바위는 고대 고인돌 문화와 제의적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수경은 큰 바위 앞에 설 때마다 종종 미세한 진동을 느끼곤 했다고 한다. 이는 어쩌면 내면의 자기장이 바위 속 광물과 반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바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를 발산하며,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품은 존재처럼 신비롭고 성스러운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다. 이수경은 바위로 만든 작품을 한국에서 아부다비로 보내는 여정에 조용한 마음을 담고자 시도했는데, 바위의 여정을 기리기 위해 한국 전통 음악가가 부른 노래를 헌정하며 그 안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너는 진짜다. 너는 돌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에서 태어난 존재다.
평화와 공존의 영혼을 새 보금자리로 옮겨가며 전해주길 바란다.”

메시지는 말이 아닌 멜로디로 감정을 표현하는 한국 전통 음악의 한 형식인 ‘구음(口音)’을 통해 전달되었다. 돌이 아부다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음악가는 새로운 노래로 이 낯선 존재를 환영했다. 이 노래는 돌의 도착을 기념하고 새로운 땅에서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였다.



〈그곳에 있었다_아부다비 2024〉 설치 전경, 2024, 아부다비 헤리티지 공원,
FRP, 24k 금박, 우레탄 페인트, 스테인리스 스틸, 172(h)×187×182 cm



〈그곳에 있었다_알 아인 2024〉 설치 전경, 2024, 알 아인 힐리 고고학 공원,
FRP, 24k 금박, 우레탄 페인트, 스테인리스 스틸, 160(h)×185×183 cm



〈그곳에 있었다_아부다비 2024〉 2024, 단채널 비디오, 6분 3초
퍼포먼스: 김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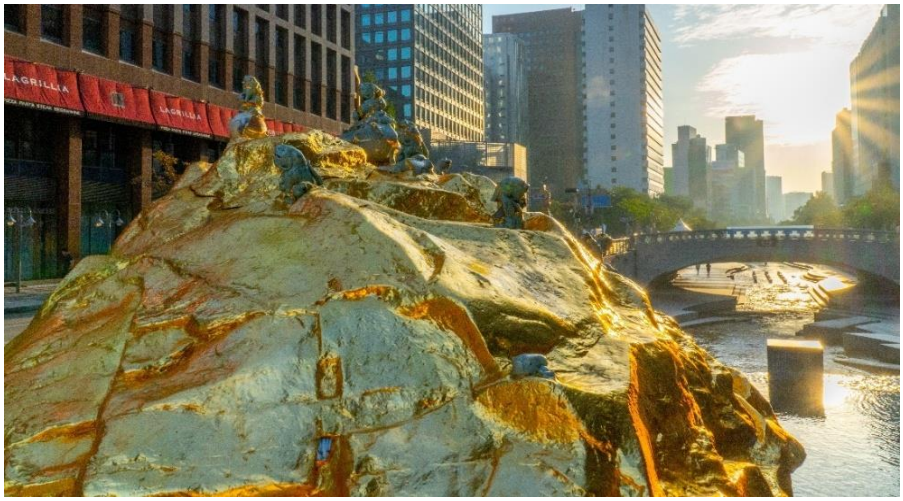
〈그곳에 있었다_아부다비 2024〉, 2024, 단채널 비디오, 6분 16초
퍼포먼스: 사이프 알 알리(Saif Al Ali)

〈그곳에 있었다_청계천 2025〉 (2025)

서울특별시가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기획한 청계천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명공모에 당선된 〈그곳에 있었다_청계천 2025〉는 북악산 정상의 두꺼비 바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바위 형태에 도자기 파편·금박을 덧씌운 작품과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축원하는 일곱 팀의 공연으로 구성된다. 청계천에서 경복궁을 바라보면 서울의 주산이며 과거 청계천의 수원지인 북악산이 보인다. 그 정상에는 두꺼비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이름을 붙인 이는 두꺼비가 상징하는 풍요와 번영을 빌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이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이번 작품을 준비하며 이수경은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이름 모를 수많은 도자기가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흙에서 출발해 물을 만나 형태를 얻고, 불이라는 인고의 과정을 통해 피어난 도자기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흔적이 담긴 존재가 아닐까 생각하며 〈그곳에 있었다〉 연작과 〈번역된 도자기〉를 결합한 이번 작업을 구상했다. 〈번역된 도자기〉는 이수경의 대표작으로, 버려진 도자기 파편을 재구성해 '금(틈)'을 '금(金, gold)'으로 채우며 유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공존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재료 중 하나인 금은 복원이나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서짐의 사건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파괴를 통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한다. 또한 완벽에 이르지 못해 파괴된 미완의 존재를 성스러운 존재로 변모시키는 연금술적인 재료이기도 하다. 작품을 보는 시민들은 작품을 바라보며 미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동시에 QR코드를 통해 공연 관람을 하며 보는 것을 넘어선 다감각적 예술을 경험한다.





〈그곳에 있었다_청계천 2025〉, 2025, FRP, 24k 금박, 도자기 파편, 에폭시, 우레탄 페인트, 스테인리스 스틸, 254(h) ×255×247 cm



〈그곳에 있었다_청계천 2025〉, 2025, FRP, 24k 금박, 도자기 파편, 에폭시, 우레탄 페인트, 스테인리스 스틸, 254(h) x 255 x 247 cm

이번 프로젝트는 이수경의 작업에 다양한 참여자들의 연주와 가창, 퍼포먼스를 더해 새롭게 탄생한 존재를 축원하고 청계천에 자리한 작품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는다. 더불어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바위와 자유롭게 흐르는 물, 눈으로 보는 미술과 귀로 듣는 음악이라는 이질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인류는 오래 전부터 새로운 존재가 태어날 때 축원의 음악을 선물해왔다. 청계천에 새롭게 놓인 작품을 맞이하는 공연은 청계천의 생태계로 향하고, 작품과 작품이 놓일 청계천 그리고 모두의 평화와 축복을 기원한다.



〈그곳에 있었다_청계천 2025〉 퍼포먼스 이미지

〈불꽃〉 (2005-진행중)

이수경의 〈불꽃〉 페인팅은 치유적이고 신비로운 암시를 불러일으키며, 부적이나 불화에 흔히 사용되는 전통 한지 위에 깊은 붉은 색의 주사로 정교하게 그려졌다. 이 작업은 초현실주의자들의 자동기술 드로잉처럼 본능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수경은 불꽃을 삶과 죽음, 죄와 치유의 상징으로 본다. 극도의 노동집약적인 이 과정을 통해 이수경은 스스로 증식하는 회화적 혼돈 속에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각 작업의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의미와 통찰을 발견하고자 한다. (글: 박지선)





《파라다이스 호르몬》 설치 전경과 작품 이미지, 2008, 서울 몽인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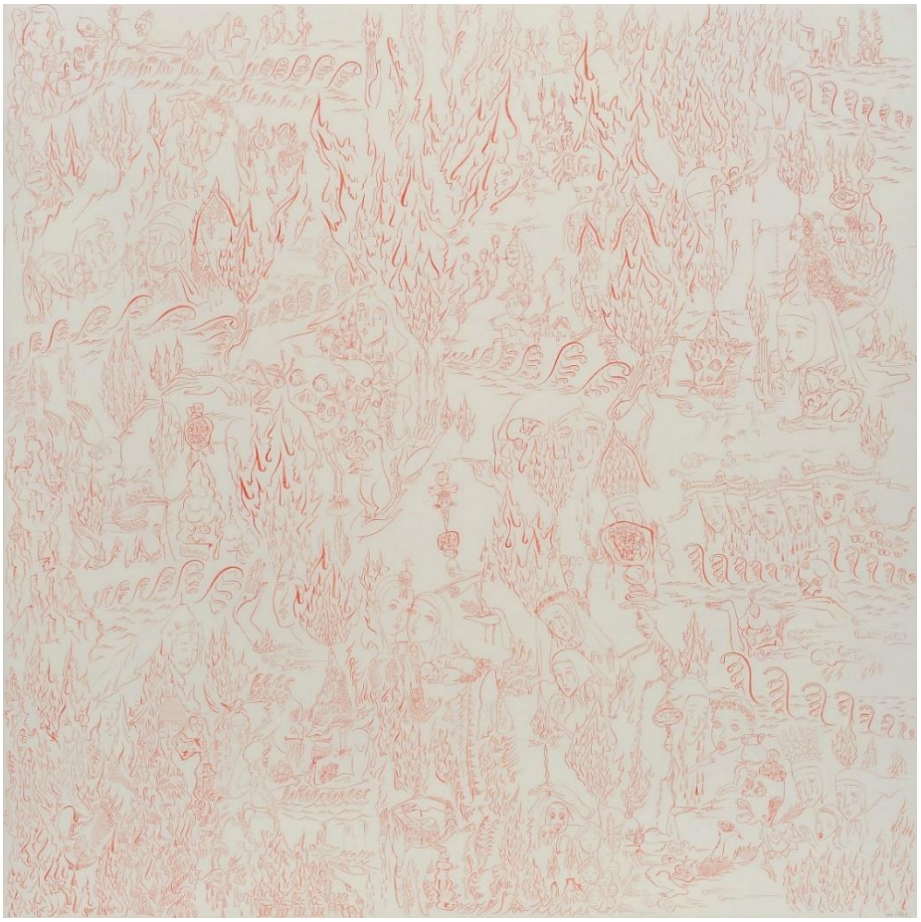


〈불꽃 2009-3〉, 2009, 한지, 경면주사, 196×260 cm





(왼쪽) 〈무제〉, 2005, 한지, 경면주사, 30×30 cm
(오른쪽) 〈불꽃 2006_1〉, 2006, 한지, 경면주사, 100×100 cm



〈불꽃 2013_1〉, 2013, 한지, 경면주사, 100×100 cm

〈불꽃 변주〉 (2012-진행중)

〈불꽃〉과 〈불꽃 변주〉는 이수경이 2004 년부터 시작한 연작 〈매일 드로잉〉에서 발전한 작품들로, 여성으로서의 자아 성찰과 정체성 탐구를 위한 일상적인 수행에서 비롯되었다. 만다라를 연상시키는 초기 드로잉은 명상적이면서도 깨우침의 순간을 담고 있다. 〈매일 드로잉〉과 〈불꽃〉 연작에서 사용된 모티프를 기반으로, 〈불꽃 변주〉는 디지털로 대칭되며 변형된 후 정교한 수작업을 통해 채색된다. 이 과정은 신성함과 세속성,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복제하는 듯하며 낯설지만 숭고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비단 족자에 그려진 이 그림은 고구려 고분 벽화의 도상학과 티베트 불교 제단화의 대칭적 공간 구성을 떠올리게 하고, 명상적이면서도 에너지를 담고 있어 비선형적이고 사유적인 방식으로 중층적인 상징과 은유를 전달한다. (글: 박지선)





(위) 《쌍둥이 성좌》 전시 설치 전경, 2012,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아래) 〈불꽃 변주 1-1〉, 2012, 비단, 안료, 그림 70×120 cm, 족자 195×138 cm

〈쌍둥이 춤〉 (2012)

〈쌍둥이 춤〉은 퍼포먼스 작품으로, 백색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영상 작품으로도 제작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동일한 기념품 인형처럼 꾸민 두 명의 무용수가 대칭적으로 동작을 맞추어 공연한다. 그들은 조선 시대의 기방춤을 추는데 마치 영원하고 신비로운 공간 안에서 후광에 싸인 듯 꿈처럼 떠다닌다. 두 명의 무용수는 정교하고 매혹적인 동작으로, 여성의 형태가 지닌 생명력과 내면의 힘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춤을 구현하며 전통 한국 사회에서 이상화된 여성상을 몸소 표현한다. (글: 박지선)

Preview: https://vimeo.com/151764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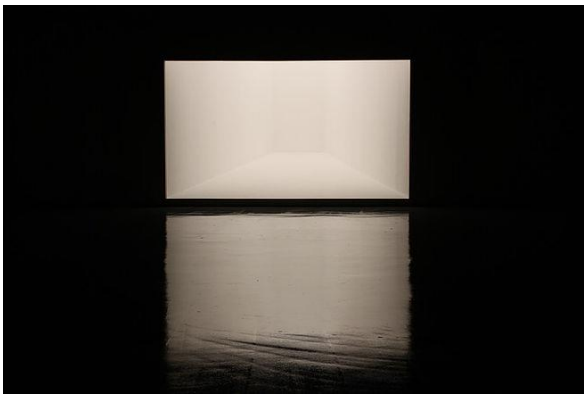


〈쌍둥이 춤〉, 2012, 단채널 영상과 소리, 11 분 52 초
퍼포먼스 및 비디오 디렉팅: 이수경, 퍼포먼스: 이정화, 정송이, 음악: 장영규,
의상: 김영석, 메이크업: 소인경, 카메라 및 영상 편집: 차은택

〈노래〉 (2010, 2012)

〈노래〉는 전통 한국 음악인 가곡 공연과 무대 디자인을 포함한 작업이다. 가곡은 여성과 남성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소규모 한국 악기 앙상블이 동반하는 전통적인 음악 형식이다. 가곡은 전통적인 '정가' 중 가장 세련된 스타일이고, 이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이수경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통 악기 반주를 배제한 채 오직 여성 공연자의 목소리만으로 구성된 공연을 기획했다. 이 공연에서는 전자 장치나 증폭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원음의 순수함을 보존하며 여성의 섬세한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이수경은 앞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의 독특한 무대를 디자인했다. 이 음악은 경쾌하거나 침울하지 않으며, 고요하고 우아한 선율을 담고 있다. 몸과 영혼을 정화하는 경험을 추구하는 명상적인 음악이다. (글: 박지선)

Video: https://vimeo.com/31987004







〈노래-우리의 시도가 지연되는 동안〉, 2010
무대 디자인 및 퍼포먼스 디렉팅: 이수경 / 프로듀서: 김인선(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퍼포먼스: 정마리 / 무대 도면: 김영진 / 영상 편집: 김준하 / 의상: 이수경

〈오, 장미여!〉 (2026)

〈오, 장미여!〉는 이수경의 작업에서 빈번히 등장해 온 소재인 장미에서 출발한 영상 작업이다. 이수경이 그려온 장미를 기반으로 AI 생성형 비주얼 시스템을 통해 구현된 꽃잎과 줄기, 배경을 취향껏 선택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을 거쳐 개별화된 '나만의 장미'가 '나만의 정원(디지털 디바이스)'에서 끝없이 피고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육종(育種)'이라는 행위가 생물의 유전적 성질을 이용해 인간이 원하는 형질을 얻어내는 인위적인 개입을 전제하듯이, 나만의 정원에서 피어날 장미의 꽃잎과 줄기, 배경을 선택하는 과정 역시 인위적이고 개인적인 개입을 수반한다.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선택된 요소들로 구현된 '나만의 장미'는 디지털 환경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생'을 획득한다.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생 모멘트'가 첨단 테크놀로지로 구현된다. (글 김윤경)

Preview: https://vimeo.com/1207979417



〈오, 장미여!〉, 2026, 단채널 영상, 192 시간

〈달빛 왕관〉 (2026)

생성형 인터랙션 기술로 만든 〈달빛 왕관〉 은 인간이 통제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보다 큰 순환의 주기 속에서 결코 동일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한다. 관람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태양과 달의 주기적 변화 및 기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그에 따라 7개의 왕관을 구성하는 21개의 시각 요소들은 끊임없이 해체와 재조합을 반복한다. 성인(聖人)들의 머리 위로 빛나던 후광을 대체해 온 인간의 왕관—스스로의 결핍을 감추기 위해 참칭해 온 권위와 권력, 위엄과 영광—을 의심하고 해체하고자 했던 이수경의 노력은 〈달빛 왕관〉 연작(2019-현재)으로 변주되어 왔으며, 이러한 의도는 이제 생성형 인터랙션 기술을 통해 한층 생생한 감각적 실재로서 눈앞에 펼쳐진다. 선명한 화면 위에서 비현실적으로 반짝이는 왕관들은 거대한 우주적 순환에 따라 모습을 바꾸며—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본래의 모습을 찾아 끝없이 미끄러진다. (글 김윤경)

Preview: https://vimeo.com/1207988537



〈달빛 왕관〉 , 2026, 단채널 영상, 실시간 인터랙션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2026)

엉킨 매듭을 풀다가 한 송이 장미를 발견하고 미소 짓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재현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은 동일한 제목의 작업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2024)을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변주한 작업이다. 우주 구석구석을 관통하고 채우는 신의 편재성처럼 통신 네트워크가 온 지구를 광활하게 연결하는 21세기, 우리 내면의 신성 역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맑고 명료한 디지털 공간 속 성스러운 존재와의 동기화를 통해 발현되는 것일까. 2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은 채 신의 임재(臨在)와 영원히 공존하는 성모의 형상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우리 안의 신성을 끊임없이 갱신하는 업데이트 장치로 작동한다. (글 김윤경)

Preview: https://vimeo.com/1207987515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2026, 단채널 영상, 3 분